

얀바루의 3 개 마을

구니가미

구니가미촌은 얀바루 최북단의 마을로 면적도 제일 크고 인구도 약 4,000 명으로 제일 많은 마을입니다. 오키나와 최고봉인 요나하다케 산(503m)이 있고, 또한 해도 곳곳 주변에 높게 솟은 절벽과 침식된 석회암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오키나와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 경관 중 하나입니다. 마을의 84%가 넘는 면적이 나무들로 뒤덮인 구니가미촌은 얀바루 중에서 가장 산림의 혜택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구니가미촌의 주민들은 다른 마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숲, 목재, 천연 염료인 류큐 쪽을 생산합니다. 전통 축제 마쓰리는 마을마다 조금씩 형식이 달리한 시누구 마쓰리가 있습니다. 아다 마쓰리는 특히 유명합니다. 아다의 남성들은 산 덩굴로 머리를 장식하고 큰북을 두드리며 산을 내려옵니다. 여성들은 마을에서 남성들을 맞이합니다. 풍작을 기원하는 잔치가 열리고 밤 늦게까지 춤이 이어집니다.

오기미

오기미촌은 서해안 해변에서부터 중앙부의 산지까지 펼쳐진 인구 약 3,000 명이 사는 마을입니다. 오기미촌의 숲에 있는 타타키 폭포로 얀바루에 내린 비가 흘러 들어갑니다. 이 숲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다른 명소는 수백 년 전에 멧돼지로부터 농작물을 지키기 위해 건설된 돌담입니다. 오기미촌은 바나나의 일종인 이토바쇼의 줄기로 만든 옷, 바쇼후를 짜는 오랜 전통으로 유명합니다.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는 공정을 거쳐 만드는 바쇼후는 예전에 마을 사람들이 입던 의복뿐만 아니라 류큐 왕국의 왕족과 귀족에게 바치는 공물이기도 했습니다. マングローブ林

히가시

얀바루의 남동 해안에 위치하는 히가시촌은 인구 약 1,000 명의 가장 인구가 적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숲으로 뒤덮인 산이 많이 있고, 또한 오키나와 본섬 최대 맹그로브 숲이기도 합니다. 썰물 때에는 육지가 수면 위로 나타나고 밀물 때에는 육지가 수면 밑으로 잠기는 조간대에 생식하는 맹그로브는 야생 동식물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히가시촌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목재, 장작, 숲을 위해 산림을 채벌하여 이들을 섬에 산림이 적은 지역에 운송하는 얀바루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이 관습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도 이어져 이들 자원은 전쟁으로 파탄에 이른 인프라를 재건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히가시촌은 일본 최대 파인애플 생산지이지만 망고와 채소 등 다른 작물과 파인애플을 먹여 키운 토종 흑돼지인 아구 돼지로도 유명합니다.